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16호 2020년 2학기(2020. 09. 01 - 2021. 02. 28)
2021년 1학기(2021. 03. 01 - 2021. 08. 31)





CONTENS

06 1. 새로운 간호학과 교수진 소개

- 이현주 학과장 소개
- 신임교수 김영미 교수 소개
- 신임교수 박일태 교수 소개

08 2. 우송간호 역량 강화

- (1) 취업역량 및 학습역량
- 2021 취업현황
 - 미국간호사 이소현 동문 인터뷰
 -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특강
 - 취업목표설정 교육
 - 온라인 학습법 특강
 - BLS, KALS 자격증 취득기
 - 4학년 재학생 인터뷰
 - 9기 졸업생 미니 인터뷰
- (2) 임상실무역량
- 강남 세브란스병원 실습
 - 충남대학교병원 실습
 -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실습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실습
 -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실습

21 3. 미래의 '후배양성'에 힘쓰는 우송간호

- (1) 수시
- 2021 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 2020 WSU 찾아가는 전공체험 (동방고등학교)
 - 2020 WSU 온라인 전공체험
 - 2021 WSU 찾아가는 전공체험 (논산여자고등학교)
 - 2021 WSU 찾아가는 전공체험 (한광고등학교)

26 4. 우송간호 이모저모

- (1) 즐거운 대학 생활
- 2020 학술제 - 비교과 창의융합경진대회
 - 2021 슬기로운 간호생활
 - 2021 버디버디
- (2) 간호학과 일상 엿보기
- 2021년도 간호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021년도 간호학과 전체 교수-학생 간담회
 - 2021년도 나이팅게일선서식
 - 졸업생 네트워크 특강
 -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와 간호사의 덕목 특강
 - KVCT 심리검사 및 특강
 - CCT 심리검사 및 특강
 - MBTI 심리검사 및 특강

34 5. 코로나19에도 계속되는 우송간호

- 코로나19는 어떻게 대처할까?
- 3, 4학년 임상 실습과 온라인 실습 병행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조채은 발행처 SOL-Time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회 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 'Sol-Times' 소속 조채은입니다. 저는 2021년 1학기 학생회에서 학과 홍보지를 발행하는 부서의 담당 학생으로, 이번 홍보 책자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며 홍보 책자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학생회 학생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이번 홍보 책자를 무사히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본 책자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1년 동안 있었던 행사나 소식을 담고 있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학과 홍보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더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l-Nursing Times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 동아리입니다. 우송간호의 소식과 행사를 담은 잡지와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Sol-times는 글, 사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목적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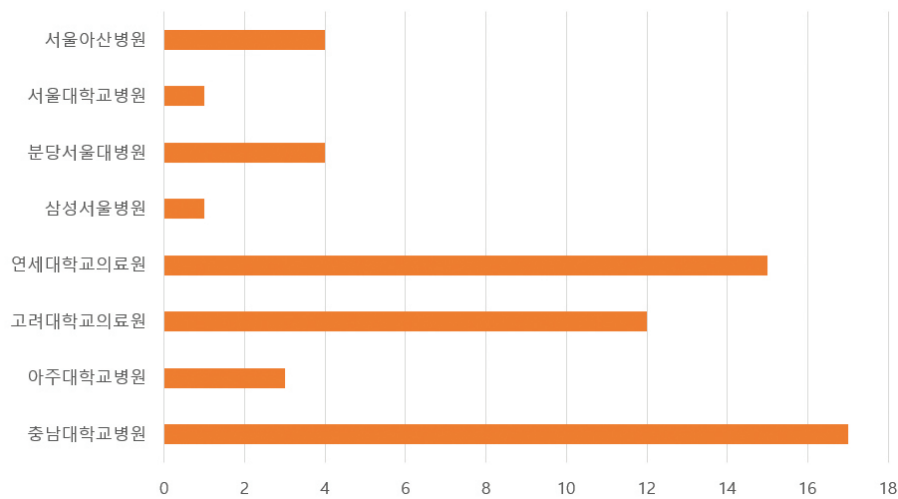
건학이념	자립 · 단정 · 독행
대학비전	THE SMART UNIVERSITY FOR THE WORLD
학과비전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리더
교육목적	간호교육과 학술연구 및 사회봉사를 통해 자아실현과 국가발전 및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간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기 위하여 간호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비판적인사고능력을 확립한다. 2. 대상자의 건강증진, 질병예방과 회복을 위하여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함양한다. 3. 간호수준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간호역량을 함양한다.

우송대학교 프로그램 학습성과

핵심역량	프로그램 학습성과
문제해결 역량	PO1. 인간돌봄과 관련된 교양지식과 간호과학적 지식을 적용한다. PO2.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술기를 수행한다. PO5. 건강관련 연구과정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창의융합 역량	PO3. 간호전문직 표준과 법적, 윤리적 기준을 이해하고 확인한다. PO4. 간호 리더십을 발휘하여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글로벌간호 역량	PO6.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PO7.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용할 글로벌 간호역량을 습득한다.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간호리더

2021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신입간호사 합격현황



2021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신입간호사 채용합격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복채용을 포함하여 서울아산병원 4명, 서울대학교병원 1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명, 보라매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강북삼성병원 1명, 연세대학교의료원 18명, 고려대학교의료원 13명,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2명, 아주대학교병원 3명, 단국대학교병원 1명, 충남대학교병원 17명, 서울순천향병원 3명, 부천순천향병원 2명, 천안순천향병원 4명, 가천대길병원 2명, 국립암센터 3명, 분당차병원 3명, 성빈센트병원 3명, 인천성모병원 2명,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2명 등이다.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채용공고가 미뤄지는 등 많은 학생이 여러 걱정이 있었음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

◆ 조채은 기자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새로운 도약

”

이현주 학과장



이현주 학과장 취임

벌써 9기째 졸업생을 배출해 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새로운 학과장이 취임했다. 이현주 학과장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의 초대 학과장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와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이외에도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 우송정보대학 부총장,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정책 전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힘쓰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간호학과 보건의로 법규를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4학년 재학생은 “작년부터 교수님과 지역사회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정말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국가고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 맞게 저희를 위한 수업 방식으로 지도해주셨던 것이 가장 감사했어요.”라고 전했다. 다른 재학생은 “저는 학과장님의 지도 학생입니다.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기 위해 연락을 드렸을 때, 늦은 시간까지 제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첨삭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늦은 시간까지 시간 내주시고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흐름도 잡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재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지도 학생은 물론 간호학과 의 모든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 조채은 기자



2021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교수가 새로이 들어왔다. 김영미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와 석사, 박사를 모두 취득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은 물론 수간호사, 간호과장으로서 활약했다. 현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간호 관리학을 도맡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3학년 재학생은 “간호 관리학이라는 과목이 너무 생소하고, 용어도 모두 처음 보는 것투성이라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교수님의 다양한 임상경험을 함께 설명해 주셔서 개념 정리가 되었다. flipped learning이라는 혁신적인 수업이 참신했는데, 동영상 수업을 미리 듣고 학생이 문제를 만들어 조별로 취합하여 전체 학생들과 문제를 풀어 보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학습증진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김영미 교수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김영미 교수의 간호사 생활 이야기는 책 ‘간호사 김영미’를 통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김영미 교수



◆ 조채은 기자

“ 신임교수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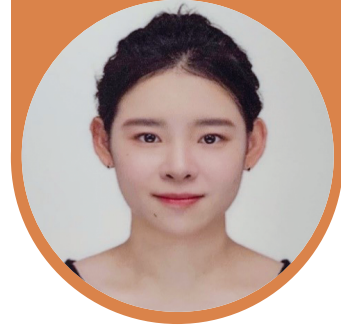
박일태 교수

박일태 교수 또한 2021년 새롭게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함께하게 되었다. 박일태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였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했다. 그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임연구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하고 고려대학교 아동간호학 시간강사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현재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전문분야인 아동간호학은 물론, 다양한 과목을 맡고 있다. 박일태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3학년 재학생은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가 인상 깊었고, 쉽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더욱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동간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며 강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새 학기에도 박일태 교수의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이 예상된다.

◆ 최연우 기자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자 인터뷰

이소현 동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 2년 이수 후 2년간 미국의 FSU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는 프로그램으로 4년동안 한국과 미국대학의 학위는 물론 양국 간호사 면허 2개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소현 동문은 2020년 5월 Fairmont State University(FSU) 졸업과 동시에 같은 해 8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현재는 미국 West Virginia University(WVU) 대학병원 메인 캠퍼스인 Ruby Memorial Hospital Bone Marrow Transplant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Fairmont 준비과정과 미국 간호사로서 일하면서 좋거나 특별했던 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소현 동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Fairmont State University를 졸업하여 현재 WVU 대학병원 메인 캠퍼스인 Ruby Memorial Hospital Bone Marrow Transplant 병동에서 9개월 차 근무 중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6학번 이소현입니다.

Q.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하기로 한 이유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미국대학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는 1년의 취업 기회가 제게는 소중한 모든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나중에 후회로도 남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오랜 꿈은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어 전문간호사로 성장하는 것이기에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Q. 현재 미국 간호사로 일하면서 느꼈던 미국 간호사의 장점 혹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제가 한국에서 실습이나 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기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우선 수평적인 근무 분위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기회와 환경, 근무시간 또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Q. Fairmont State University를 가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위해 토플 시험을 봤고 학점 관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면 평소에 영어공부를 꾸준히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이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와 미국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A. 양쪽 학교의 협약으로 맺어진 In-State Tuition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주어진 큰 혜택이며,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들을 통해 미국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제가 바로 미국 본과 수업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제2외국어 수업도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melting pot’이라는 말에 맞게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과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2외국어로 아랍어 수업을 들었고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 배웠던 아랍어로 아랍인 레지던트들과 인사하며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혹은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줄 충고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미국 간호사의 꿈, 이 두 가지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미국 간호 전문가로서의 꿈을 꾸는 우송인 및 예비 우송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Fairmont State University를 오기 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우송대학교 Best Practice 학과”에 선정되어 GPS(Global Proficiency program for nursing Student)를 통해 말레이시아 연수를 다녀왔고, 우송대학교 해외 탐방 연구 프로그램인 Sol-challenge 1기로 미국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송대학교는 복수학위프로그램 이외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좋은 수업들과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기회도 간과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활용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동등한 환경에서도 소중한 기회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글로벌 간호 인재 육성에 있어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는 장점이 너무 많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목표를 설정할 때 단기간 목표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까지 바라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는 병원취업 이후에도 나아갈 길이 많은 분야이고, 미국은 그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는 우송간호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서영, 김지영 기자 / 사진 출처: 이소현 동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학생경력개발센터의 3학년 대상 자기소개서 캠프

지난 11월 12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경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자기소개서 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내년 병원 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된 이 특강은 병원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병원 별 자기소개서 항목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떠한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며 학생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구분하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혼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학생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의 자기소개서 도우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번 특강에서 들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활용하여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볼 수 있는 'SCA 자기소개서 경진대회'의 참여를 격려했으며 특강은 마무리되었다. 자기소개서 캠프에 참여해 특강을 들은 조채은 학생은 “내년이면 4학년이 되어 취업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나의 경험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내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발돋움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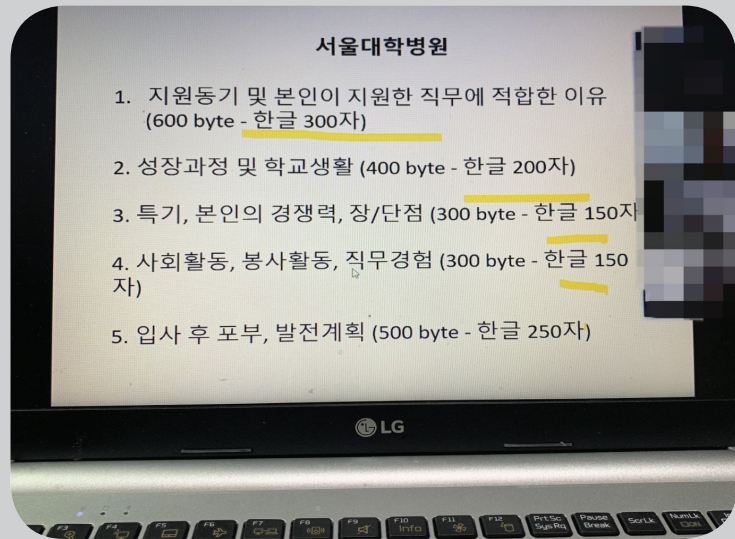
◆ 이다영 기자



취업을 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2학년 취업목표설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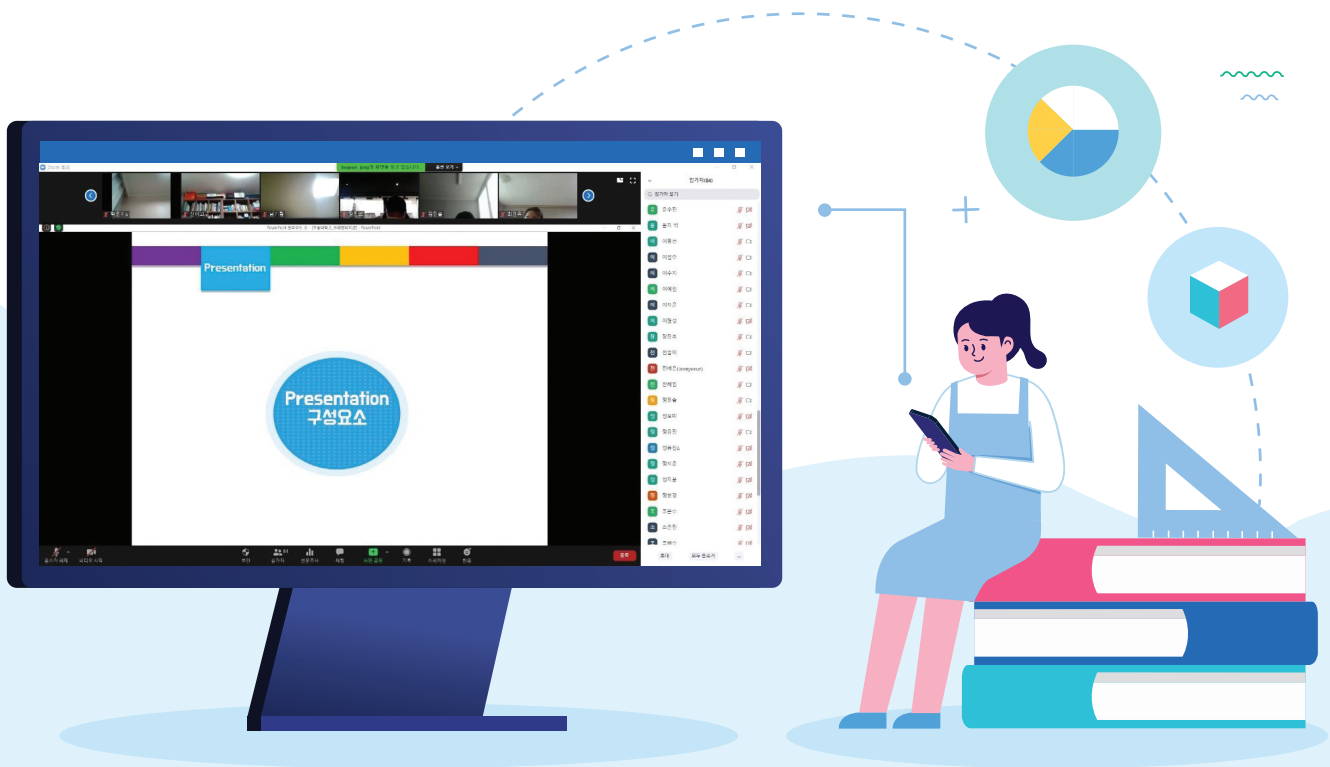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1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취업목표설정교육 특강이 진행되었다. 학생경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한 취업목표설정교육 특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온라인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주로 취업과 관련된 목표 설정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등 다양한 대학병원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이 끝날 때에는 학생경력개발센터의 소개를 통해 진로목표설정,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강을 들은 2학년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기 막막했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내용을 준비하기에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특강 강사님은 자기소개서 항목은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병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는 당부와 함께 강의가 마무리됐다.



◆ 최수연 기자 / 사진 출처: 최수연



시대를 앞서 나가는 우송간호 2학년 온라인 학습법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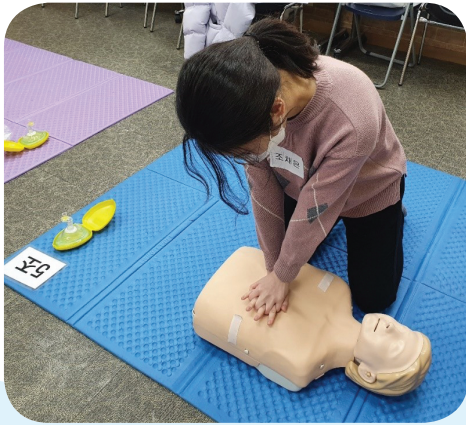


지난 2020년 12월 18일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2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법 특강이 진행되었다. Zoom을 이용하여 진행된 이 특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우송간호 학생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해당 강의는 혁신적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는 다양한 방법과 질 좋은 발표자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수준 높은 발표자가 되기 위한 자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혁신적 수업이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학생주도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Canva’, ‘조선닷컴 더스토리 인포그래픽스’, ‘망고보드’, ‘플랫아이콘’ 등 학생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만한 사이트 및 자료 출처에 대한 안내도 특강 내용에 포함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2학년 학생들은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수업에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특강에서 얻은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면 앞으로의 수업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공통된 소감을 전하였다.

◆ 최연우 기자 / 사진 출처: 간호학과 사무실

응급상황 속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기 위한 노력

BLS/KALS 자격증 취득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국민안전교육협회 응급재난 시뮬레이션 센터(대구)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6명이 BLS(Basic Life Support)와 KALS(Korea Advanced Life Support)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다녀왔다. 두 가지 자격증 모두 보건의료인 과정이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BLS 자격증을,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 KALS 자격증을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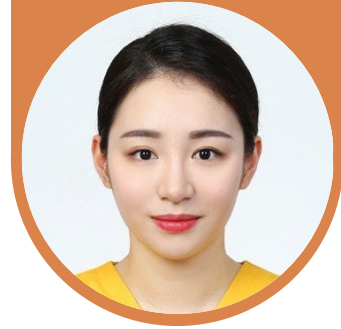
BLS(Basic Life Support)는 술기와 이론이 병행하여 진행되었고, 반복적으로 술기 연습을 하여 모두가 술기 평가에 통과할 수 있었다. 이어서 필기시험도 술기 연습 동안에 강조된 이론, 시행한 술기 내용에서 모두 출제되어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KALS(Korea Advanced Life Support)는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심정지 알고리즘' 중점으로 실기 연습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실기는 6명이 한 팀이 되어 실기 연습 및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반복 연습(3번 이상)을 통해 모두 실기 평가에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도 강조된 이론, 술기 내용 위주로 나와 모두 통과할 수 있었다.

하루 동안 BLS, KALS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대구에 가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6명 모두가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자격증 교육 및 시험 시행 동안 방역 수칙이 모두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박지은 학생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박지은 학생은 "일단 무사히 자격증 2개를 모두 취득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교육해주신 교수님, 선생님들이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했고 이론, 실기를 반복 연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KALS는 모든 일반인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다 보니 더 전문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라고 전했다.

◆ 조재은 기자 / 사진출처: 조재은

우송대학교 4학년 재학생 인터뷰

신유진 학생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한 계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 간호학과 18학번 4학년 재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는 해부생리학, 간호철학과 역사, 성인·아동·여성·정신간호학, 의료법규 등 이론을 배우고 관련 실습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과 예술이 공존해 있는 간호에 매력을 느꼈고, 외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2 복수학위로 한국 간호사 면허와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되어있는 프로그램과 3년간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국제간호 특성화 과정이 있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마음에 들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장점을 뽑자면 바로 국제간호 특성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간호학 전공 외국 인 교수에 의한 강의 진행, 원서 사용을 통해 간호지식 습득과 영어 실력 향상은 기본이고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제2외국어 또한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외 연수 및 유학프로그램이 있어 다양한 나라의 간호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간호사 면허를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다른 간호학과와는 차별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임상 실습 중, 의학용어로 대화하는 의료진들의 대화를 들 으면서 환자의 상태와 어떤 시술, 치료 등이 적용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1학년때는 외국인 교수님과 원서수업이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간호학과 선배님들께서 친절하게 공부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 시간을 투자해 열심히 재밌게 공부하니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다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나요?

A.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Big4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왕립병원에 입사하여 학교에서 배운 아랍어, 아랍문화와 간호지식을 활용하여 아랍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국제간호 특성화 과정과 많은 공부량으로 간호학과 생활 중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3년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은 대학생활을 동기와 선배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배가 되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최연우 기자 / 사진 출처: 신유진 학생

9기 졸업생 미니 인터뷰

정설희 동문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사할 예정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9기 졸업생 정설희입니다.

Q.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후,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던 우리 학과만의 장점이 있나요?

A. 졸업 후,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교내 모의실습병원인 Sol-Hospital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을 함으로써 간호 술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영어 이외에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2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학과의 장점은 버디버디 프로그램이나 파자마 톡 등 선후배가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선후배님들과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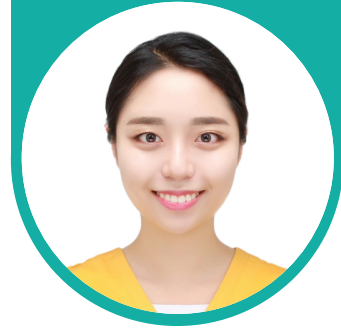
Q.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체계적인 간호 교육 과정과 함께 세계화에 맞는 교육과정 또한 갖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간호학과에 오셔서 성실하게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열정적인 교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오신다면, 보람찬 학교생활과 함께 높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간호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재은 기자 / 사진 출처: 정설희 동문



최연우 학생



강남 세브란스 실습 인터뷰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연우입니다. 이번 하계실습 때, 강남세브란스병원 74병동에서 임상 실습을 하였습니다. 제가 실습했던 74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일반 병동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간호사 선생님 한 분께서 담당하시는 환자의 수가 타 병동의 50%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고, 그 때문에 전문적이며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호인력도 타 병동보다 많이 확보되어, 한 듀티당 7~9명 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또 외과 병동으로, 큰 수술을 한 환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Q. 실습하면서 배운 점과 이론 공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학교에서 이론 공부를 할 때는 질병이나 약의 원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부하게 되었는데, 막상 실습해보니, 그런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처음 실습에 나갔을 때 이론과 괴리를 느꼈던 점이, 간접 간호에 쏟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에게 행하는 직접 간호가 대부분일 것 같지만, 사실은 기록하고, 타 부서와 연락하고, 준비하고, 설명하고,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는 등의 간접 간호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에서 말씀해주신 차이점을 느끼게 된 에피소드가 있나요?

A. 한가지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수혈을 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수혈 전 혈액형 확인, 환자 확인, 수혈 후 부작용 확인, IV line 연결 등 이론적이고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혈액은행에 혈액 신청하기, pRBC 가져오기, 수혈 동의서 받기, 수혈이 필요한 이유 파악하기, 수혈 교육하기, 혈액 준비하기 등 업무적인 면들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론은 베이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간호사의 업무는 ‘일’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 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하여 이론을 자연스럽게 업무에 녹여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실습을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정말 실습을 꼭 하고 싶었고, 가면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습 날짜가 다가오니 너무 두려웠고, 전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선생님들과 환자분들께 폐만 끼치지 않는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배운 지 오래되어 잊어버린 것들도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복해서 보다 보니, 점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즐겁게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항상 두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습하러 가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만 하지 말고, ‘다들 해내는데 나라고 못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조채은 기자 / 사진 출처: 최연우 학생

충남대학교병원 실습 인터뷰

이다영 학생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본인이 실습한 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이다영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학기에 충남대학교 병원 141병동에서 성인간호학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141병동은 신장 내분비내과로 신장 질환 및 호르몬의 분비 이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다루는 병동입니다. 그리고 인공신장 실을 운영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시행합니다. (내과 병동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을 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Case Method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4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한 간호사가 2~3개의 병실을 담당하여 환자를 간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 실습하면서 수행했던 일(간호 수행)과 새롭게 경험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병동 실습하며 활력 징후(Vital Sign) 측정과 혈당 검사(BST)를 가장 많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공신장실을 방문하여 환자의 혈액 투석 전, 중, 후 진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혈액 투석 과정을 관찰하는 동안 담당 선생님께서 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혈액 투석에 대한 근거 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서 실습하는 동안 혈액 투석을 통한 환자의 신기능 회복과 그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의 입원한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1인실로 격리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환경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Q. 2020년도에는 온라인 실습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지난번, 하계 실습에서 온라인 실습만 하다가 이번에(동계 실습) 처음으로 병원에서 실습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장감이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실습은 직접 현장에서의 분위기,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 EMR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환자들을 직접 대할 수 있어 대처 능력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실습에서는 질병에 대한 병태생리, 증상, 간호과정 등에 대해 이론적인 면을 스스로 공부하고,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생각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Q. 이번 실습이 첫 현장 실습이었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현장 실습의 필요성입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실습만 하다가 현장 실습을 나가보니 새로운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또한, 병동 내에서 다양한 질병을 접할 수 있었고, 직접 간호사의 업무 관찰 및 BST, Vital Sign 측정을 직접 환자들에게 수행하면서 의사소통 기술,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 실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채은 기자 / 사진 출처: 이다영 학생

조채은 학생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실습 인터뷰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본인이 실습한 부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8학번 조채은입니다. 저는 2021년 3월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수술실과 중앙공급실(CSR)에서 1주일 동안 실습했습니다. 우선, 수술실에는 수술실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취과 간호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수술 후 회복실에서 의식 회복하기까지의 전 과정 동안 진행되는 모든 간호 수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공급실(CSR)에서는 멸균작업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Q. 실습하면서 간호학생으로서 수행한 일과 새롭게 경험했거나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수술실은 병동과 달리 간호학생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습 동안 수행한 일은 수술 중 거즈 카운팅과 검체 라벨링 등을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double checking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경험한 부분은 수술의 모든 과정을 환자 대기실에서부터 수술 과정, 회복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술실에는 스크럽 간호사와 순환간호사로 역할이 나뉩니다. 이들의 영역은 확실히 나누어지지만 서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수술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크게 느꼈고, 수술실 내에 있는 간호사는 해당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 진행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취과 간호사는 수술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약물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이번엔 처음으로 수술실뿐만 아니라 CSR(중앙공급실)에서도 실습했다고 들었습니다. CSR(중앙공급실)에서의 실습 경험이 궁금합니다.

A. 중앙공급실(CSR)은 다소 생소한 부서였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간호사는 주로 부서의 직원인 보조사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3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멸균의 전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멸균종류와 멸균 기계들도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멸균기계는 수술실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중앙공급실은 더 크고 다양한 멸균방법으로 멸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직접 수행한 일은, 수술실로 보낼 멸균물품을 함께 확인하고 double checking 하는 것이었습니다.

◆ 최연우 기자 / 사진 출처: 조채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실습 인터뷰

김수인 학생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본인이 실습한 부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김수인입니다. 제가 실습했던 곳은 특수부서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수술실로, 스크럽 간호사(Scrub nurse)와 순환 간호사(Circulating nurse), 마취간호사가 하는 일들을 직접 관찰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내부는 12개의 수술방과 마취 환자들을 위한 마취 회복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 실습하면서 수행했던 일(간호 수행)과 새롭게 경험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실습부서가 수술실이었기 때문에 실습생으로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간호수행이 많지는 않았으나, 수술실 파트장 선생님의 배려로 외과적 손 씻기, Gowning, Closed Gloving을 직접 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멸균기구들을 달라고 하실 땐, 멸균적으로 포장을 제거하여 전달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가끔 마취 회복실에 가서 일손을 돕기도 하였는데, 그곳에선 체온 측정, 체온 유지를 위한 베어 준비를 주로 수행하였고, 가끔 마취과 파트장 선생님의 지도와 함께 소변백을 비우기도 하였습니다.

수술실(OR) 실습은 관찰이 주가 되어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체위준비, 수술영역 준비, 수술상 차리기, 수술포 깔기, 타임아웃, 마취유도, 거즈 및 니들 counting, 검체 관리, 각종 수술의 진행 등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실 파트장 선생님께 멸균방법과 종류, 멸균물품의 멸균성 확인, 수술실의 기압, 수술기구 종류 등에 대해서도 교육받았습니다.

Q.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나요?

A.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제왕절개 과정을 직접 관찰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처음으로 봤던 수술이 제왕절개였던 터라 굉장히 신기했고, 전공 책에서만 보던 일이 눈앞에서 직접 벌어지니까 조금 놀라기도 해서 2주간 실습하며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뇌리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성간호에서 배웠던 자궁 저부 마사지, 출혈, 옥시토신 주입 등을 떠올려볼 수 있었고, 태어난 신생아를 보며 아동간호에서 배웠던 APGAR score 측정과 체온 유지, suctioning, 아기가 울 수 있도록 자극하기 등을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조재은 기자 / 사진출처: 김수인 학생

이다희 학생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실습한 부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이다희입니다. 저는 이번 하계실습 때,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성인 간호학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일반외과, 내과,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환자를 수용하여 24시간 체제로 강력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환자가 C-line, A-line을 갖고 계셨으며 PICC와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지속적 신대체요법)가 시행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Q. 실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나요?

A.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position change를 하면서 EKG monitor 상 산소포화도와 심박수가 불안정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Asystole이 되어 의사 선생님께서 CPR을 실시하고 Lucas로 자동 심장 압박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분마다 에피네프린을 주입하며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간호사와 의사의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땀 흘리시며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하신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도 환자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간호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실습 소감과 함께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실습을 통해 '간호사는 똑똑해야 한다.'라는 말을 깨달았습니다. 실습하면서 질병과 간호에 대해 무지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마주하며 질병의 특성, 검사, 간호, 수술 등에 대해 추가로 더 공부하며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부한 후, 사소하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간호들이 실습하면서 보이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왜 이런 간호를 수행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환자의 V/S, BST를 측정하면서 의사소통과 공감 기술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 실습은 공부하는 만큼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질문하다 보면 실습 후에 많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채은 기자 / 사진 출처: 이다희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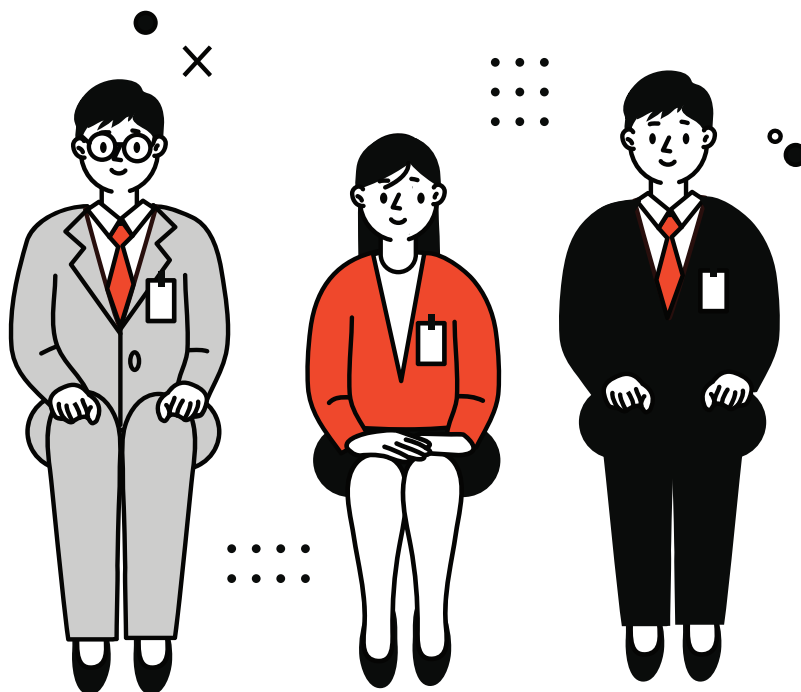
글로벌 간호 리더를 향한 도전

2021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21년도 수시 면접고사가 W5 보건의료과학관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수시 면접고사에서는 약 870여 명의 수험생이 지원하였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0월 31일 토요일까지,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1월 9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화요일까지 진행되었다. 면접 전, 학생들은 면접 준비 및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작년까지 면접 후에는 Sol hospital의 PICU(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소아 중환자실), ICU(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OR(Operating Room, 수술실)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나, 올해는 COVID-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올해는 간접적으로 학과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고, 수험생들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1학번으로 오고 싶다는 의지를 비쳤다. 11월 10일 화요일을 끝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수시 면접고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 이서영 기자 / 사진 출처: 간호학과 사무실



우송간호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전공체험



지난 9월 25일 금요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동방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전공체험이 이루어졌다. 20명 정도의 동방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지키며 진행되었다. 기존의 '활력징후 측정 체험' 대신,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손위생 및 멸균장갑, 수술가운 착용 방법을 배우는 '진로체험'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전공체험을 진행하게 된 1학년 이지애 학생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더 많은 학생들이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를 소망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 이서영 기자 / 사진 출처: 간호학과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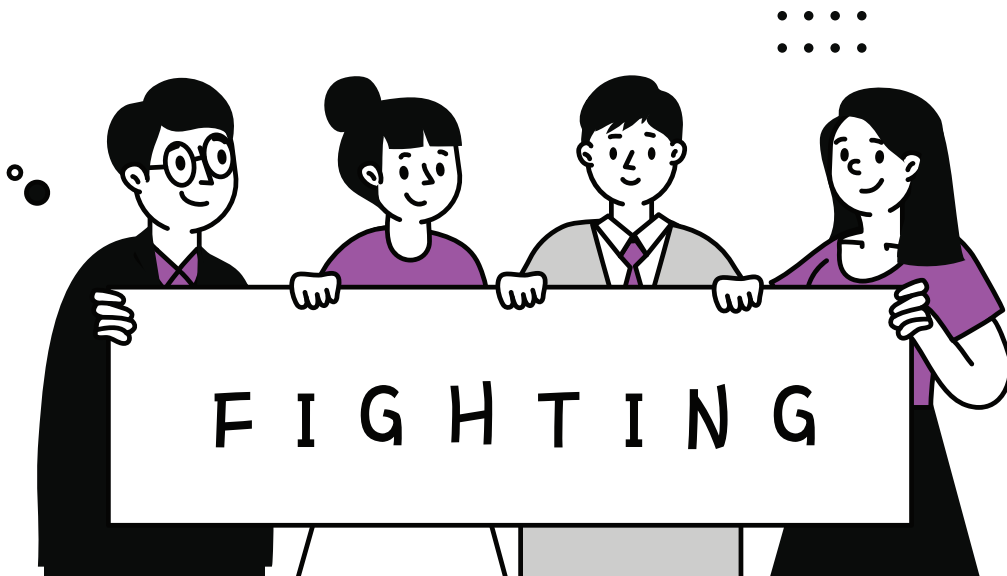
전국 어디서나 우송대 간호학과 체험하기

2020년 9월 온라인 전공체험



2020년 9월 19일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우송대학교 전공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원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던 행사였지만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그래서 우송 간호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었다. 과거의 진행 방식과 달리 학생회장 신유진 학생이 리포터가 되어 현장을 보여주며 도우미 학생들의 시범과 설명을 카메라로 담아 ZOOM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 학과장님의 학과 소개, Vital sign(활력 징후) 측정, 유치 도뇨, 위관 영양 핵심 기본 간호 술기와 Sol-Hospital 투어, 제2외국어 수업 간접 체험과 재학생 Q&A 같은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비대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모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학년 부학생회장 변지은 학생은 “COVID-19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문제, 매끄러운 진행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잘 참여해 주고 이해해 주며 우송 간호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 수고했다는 댓글을 보고 뿌듯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신유진 기자 / 사진 출처: 변지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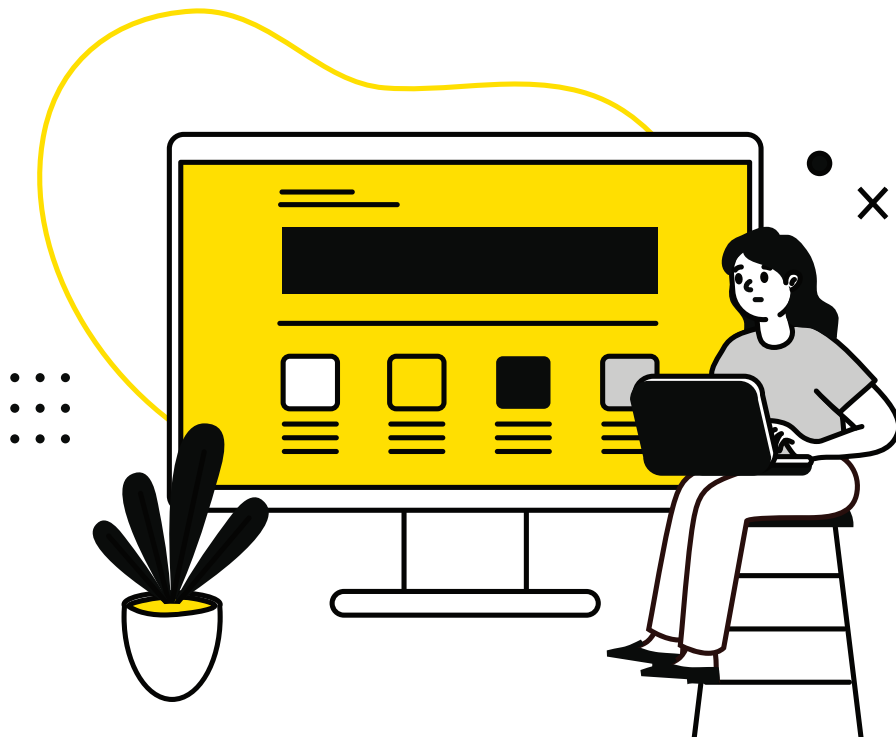
논산 여자 고등학교와 우수 간호의 길지만 짧았던 만남

논산 여자 고등학교 찾아가는 전공체험



논산 여자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공 체험이 지난 2021년 5월 18일 논산 여자 고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우수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제2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소개, 손 위생과 외과적 손 씻기 관련 영상 시청과 퀴즈, 환자의 체온, 호흡, 맥박, 혈압 수치 측정 설명,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하는 수술복과 멸균 장갑 착용 순서로 진행되었다. 논산 여자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영상을 통해 손 위생과 외과적 손 씻기 방법과 순서 등 간호학과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논산 여자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우수 간호 재학생들의 설명을 듣고 간호사가 되면 해야 하는 환자의 체온, 호흡, 맥박, 혈압 수치 측정을 직접 해 볼 수 있었으며 수술복과 멸균 장갑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었다. 수술복을 직접 입어볼 때는 학생들이 2인 1조로 서로 짝을 지어 도와주며 입었다. 논산 여자 고등학교에서의 찾아가는 전공 체험은 세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거의 모든 학생이 한 명, 한 명 전부 체험할 수 있었다.

◆ 홍보국 황유빈 기자 / 사진 출처: 황유빈



한광고등학교와 우송간호의 이야기

한광고등학교 찾아가는 전공체험



한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공 체험이 지난 2021년 4월 7일 한광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소개를 시작으로 제2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간단한 소개, 손 위생과 외과적 손 위생 영상 시청 및 퀴즈, 멸균 장갑 착용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외과적 손 위생 영상을 시청하고 멸균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간호사로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일들을 체험해볼 수 있었다. 한광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손 위생과 외과적 손 위생 영상을 시청한 후에 퀴즈를 통해 손 위생 순서를 숙지하게 되었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배웠다. 이후 영상에서 배운 방법을 통해 손소독제 사용 순서를 직접 실시해보면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으로 학습했다. 한광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멸균 장갑이기에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고 멸균 장갑 착용 전 설명을 통해 멸균 장갑을 사용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사용해보는 멸균 장갑의 착용에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한광고등학교 재학생인 만큼 흥미를 느끼고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평소 관심이 있던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다른 대학교 간호학과와의 차별점을 알 수 있게 되어 입시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에 한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대학교를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홍보국 정지현 기자 / 사진출처: 허혜인 학생



_01

Post Corona: From Crisis to Opportunity

Woosong University Academic Festival



On November 11, 2020, a nursing science academic festival was held in W5 411-3 at Woosong University. The event was attended by all students and professors from the nursing department, and the opening speech of Professor Jeong Sukyung began the full-fledged academic festival. The subject was the point of change due to COVID-19. According to the topic, students made posters in various formats.

Regarding this, there were teams presenting mental illnesses such as 'Corona Blue', and there were presentations on a variety of interesting topics, such as those focu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dealing with a new community nursing system. Unlike before, the festival was held online in a non-face-to-face manner.

Regardless of the award, it is meaningful that all the students explored our changed lives due to coronavirus and thought about how to move forward. "It was definitely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share our thoughts on how COVID-19 has affected our lives. Not only it was educational, it also reminded us of the mindsets we need to have as nursing students", Nyeongeun Jang from the nursing student said.

◆ Yujin Jung reporter / Photo: Office of nursing department





_02 우송 간호의 꽃

즐거로운 간호 생활

즐거로운 간호 생활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친목 도모와 학과 적응, 공부 방법 공유 등을 통해 학과 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활동기간은 총 7번으로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총 39개의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과 생활에 대한 질의응답, 팀원 간의 게임, 또는 좋아하는 영화나 영상을 보는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 즐거로운 간호 생활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학과 생활에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기 힘들었으나, 활동을 통해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교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학술국 황지혜 기자 / 사진 출처: 김시나 학생

_03

학과 적응 및 선후배 간의 관계형성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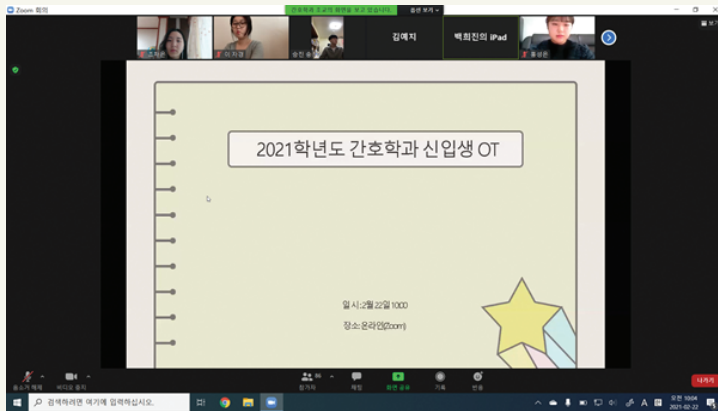
버디버디(Buddy Buddy)



버디버디(Buddy Buddy)는 우송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입생들의 학과 적응 및 선후배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주로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활동기간은 3월~6월 중 총 6번 진행하였고 전체 20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팀당 7~8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한 활동에는 과목별 공부 방법,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푸는 법, 마니또 지정을 통한 선물 증정 등이 있다. 활동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는 조원들의 MBTI를 통해 조의 특징을 표현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경진대회를 진행하였다.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비대면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과 친목을 다지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복지국 남정아 기자 / 사진 출처: 남정아





_01

새로운 시작의 첫발 내딛기 위한 준비

2021년도 간호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1년 2월 22일, 온라인 Zoom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021학년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환영 인사말을 시작으로 SOL-SUP 프로그램 소개, 수강신청 방법, 교육과정 및 졸업요건, 출석인정, 실습 병원 및 배치 방법, 장학제도, 등록금제도, 복수학위 제도, 동아리, 기숙사 소개, 학생회 소개 및 행사 소개순으로 진행되었다. 2021학년도 신입생들은 첫 시작인 만큼 궁금한 것이 많아 질문도 많았다. 주로 기숙사와 제2외국어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대면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2021학년도 신입생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하기를 희망한다.

◆ 정유진 기자 / 사진 출처: 최우영 학생





_02

우리 그래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2021년도 간호학과 전체 교수-학생 간담회

지난 2021년 4월 29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2021년도 1학기 간호학과 전체 교수-학생 간담회가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매년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학생 다수가 아쉬움을 표했지만, 내용만큼은 대면으로 진행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알찼다. 교수 소개와 더불어 2학년과 3학년들이 진행했던 다양한 학과 및 학교 행사들을 소개하는 재학생 활동 보고와 외국에서 취업하여 일하고 있는 선배들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제 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알찬 시간이었다. 3학년 박윤지 학생은 “3학년이 되어 1학년을 맞이하는 기분이 색달랐고, 선배들의 멋진 동향을 보고 원래의 꿈을 다잡는 기회가 되었다. 신입생들을 무척 환영하고, 우리 우송간호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국제적인 행보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 최연우 기자 / 사진 출처: 최연우



_03

글로벌 간호리더를 위한 첫 도약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우송대학교 도서관(W1) 강당에서 “제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비대면으로 시행한 선서식에는 임상 간호 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 98명과 교수 11명이 참여했다. 나이팅게일 선서문 낭독과 촛불 점화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우송대학교 총장, 대한간호협회장 (대전지부), 충남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졸업생 3명의 나이팅게일 선서식 축하 영상을 시청하고, 부모님께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솔이 기자 / 사진 출처: 양세린 학생

우송대 간호학과, 비대면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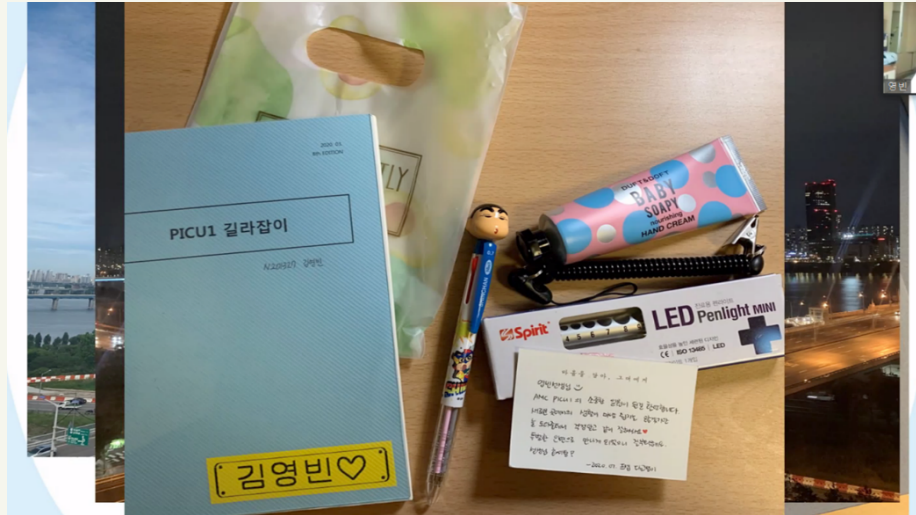


우송대학교 (총장 존 엔디컷)는 14일 우송도서관 강당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실시한 이번 선서식

에는 임상간호실습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 98명이 참여하였으며 촛불의식과 선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속에서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되새기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우송대 간호학과는 ‘국제간호교육과정’ 운영으로 영어를 비롯한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등 외국어 능력향상과 Sol-Hospital 모의 병원 구축을 통한 간호술기 역량 강화,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 (페어몬트 주립대학교)와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등 특성화된 교육으로 현재까지 졸업생 95% 이상이 대학병원급 이상의 국내 우수병원에 취업했다.

2021.05.14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_04

차근차근, 간호사로서 한걸음 내딛기

졸업생 네트워크 특강

2020년 12월 16일 18시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생 네트워크 특강이 진행되었다. Zoom을 이용하여 진행된 이 특강의 강연자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으로 현 서울아산병원 PICU (소아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빈 간호사이다. 이번 특강은 Big 5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준비과정에는 자격증, 공인어학성적, 자소서, 인·적성 검사, 면접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원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특성상 공부법 '노트필기 정리방법'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 한지민 기자 / 사진 출처: 유다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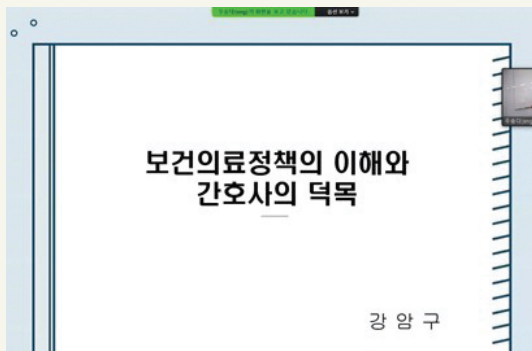




_05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덕목을 알아보는 시간

보건의료정책 온라인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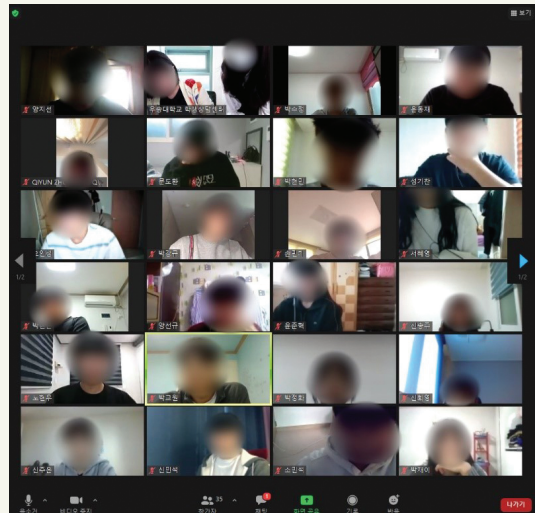
2020년 12월 15일에 간호학과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와 간호사의 덕목'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강연자는 전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교수이자 현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의 강암구 교수이다. 이번 특강은 보건의료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그와 관련된 정책과 법률에 대한 기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체계 및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병원의 미션과 이상적인 간호사의 상'을 들으면서 삶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여한 2학년 정유진 학생은 "보건의료정책을 듣고 나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지식을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건강보험 관리체계 등과 더불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알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전술이 기자 / 사진 출처: 유다애

_06

나에게 맞는 직업 군을 찾아보자!

3학년 KVCT 직무역량검사 및 특강



지난 11월 5일 목요일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KVCT심리검사 및 특강이 진행되었다. 우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해당 검사는 취업 준비를 앞둔 3학년을 학생으로 다양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측정하며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사전에 온라인 링크를 통해 검사를 시행한 후, 온라인 Zoom 미팅을 통해 검사에 대한 해석 및 특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검사는 관계 역량, 전문 역량, 실행 역량, 신체 역량으로 나누어진 역량 프로 파일을 통하여 각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우수한 역량이 무엇이며, 해당 특성에 맞추어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 군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강을 통하여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며 마무리되었다. 해당 직무역량 검사 및 특강에 참여한 김희진 학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특성이 어떤 직업 군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고 해석하기 어려운 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고 하며 소감을 전했다.



◆ 전술이 기자 / 사진 출처: 전술이

간호학과
일정 엿보기



CCT Core Competency Test for college student
2020년 11월 Page 2 최우영 이자

검사의 응답 상실도

요인	점수	설명
유효성 검사	0	문항을 제대로 읽고 응답하는데 있어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하여 유효성 검사 점수가 2점 이상이면 응답자의 반응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을 의미합니다.
부응답수	0	부응답한 문항 수를 의미하며, 본 검사에서는 하위적으로 해당하는 문항 중 50% 초과시 해당 하위 척도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습니다(0으로 표기함).

핵심역량 종합평가

역량	비판적 사고 / 문제해결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의사소통역량	협력역량	학습역량
T점수	50	60	50	49	59
백분위	50.1	84.4	51.4	46.5	82.4
수준	보통	높음	보통	보통	보통

*T점수: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로서, 50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위의 점수는 평균점보다 높고, 아래의 점수는 평균점보다 낮은 것을 의미함
*백분위: 전체 집단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 개인의 점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07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덕목을 알아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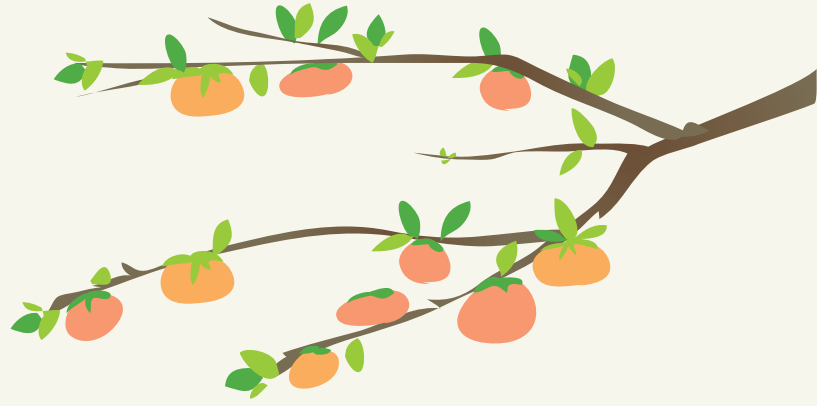
CCT심리검사 및 특강

2020년 11월 13일 오후 5시에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송대학교 심리상담 센터에서 CCT심리검사 및 특강이 진행되었다. 대학생 핵심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학생들은 특강 전 미리 검사지 링크를 받아 심리검사를 하였고, 이 결과지를 바탕으로 특강에 참여하였다. 주요 역량으로는 비판적 사고/문제 해결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학습역량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해 보았다. 이번 특강은 CCT검사 결과를 보고 다섯 개의 역량과 하위 역량의 점수, 규준집단과의 비교를 하였고 이에 대한 해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검사결과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함을 느낀다면 우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는 말을 전하고 특강을 마쳤다. 특강에 참여한 2학년 박윤지 학생은 “저의 현재 역량수준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고,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부족한 역량 수준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최우영 기자 / 사진 출처: 최우영



_08



내 성격유형은 무엇일까?

1학년 MBTI 심리검사 및 특강

MBTI® Form M 성격유형검사 (Myers-Briggs Type Indicator®)
일반용 프로파일

이름 : 손예은
생년월일 : 2000.10.22
성별 : 여
검사일 : 2020.10.22
담당전문가 : 우송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본 프로파일은 귀하의 MBTI® Form M 성격유형검사(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BTI는 개인의 성격을 잘 묘사한 16가지 성격유형 결과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성격유형은 2가지 대극으로 구성된 4가지 선호지표로 개인의 선호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MBTI® 성격유형 결과

	매우분명	분명	보통	약간	약간	보통	분명	매우분명	
외향	E 30								I 내향
감각	S 1								N 직관
사고	T 25								F 감정
판단	J 12								P 인식

ESFP (사교적인 유형) 성격유형 특성

ESFP
사교적인 유형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들

쾌활한	관대한	열성적인	생기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친밀한	낙천적인	사교적인	융통성 있는	대화를 좋아하는

지난 10월 27일 화요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MBTI 심리검사 및 특강이 진행되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사전에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개별 MBTI 검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Zoom 화상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란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융(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이다. MBTI 심리검사는 시행이 쉽고 간편하므로 학교, 직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4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16개의 성격유형으로 분류한다. 그중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은 ISFJ(임금 뒤편의 권력형) 성격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었다. 이번 특강을 통해 2학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스스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다.

◆ 유다에 기자 / 사진 출처: 손예은 학생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송대학교의 자세

제한적 대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큰 위기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가는 전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하였다. 우송대학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 시행, 건물 방역,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조치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교내 체온 측정 장소를 마련하여 매일 교내에서 체온측정 및 QR코드를 활용한 건물 출입등록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우송대학교는 대면 수업으로 승인된 일부 실습과목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학과는 '제한적 대면 수업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수업 중 안면보호 투명마스크(페이스 실드),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며, 개별 손 소독제 나눔, 강의실 내 자리 배치는 모두 2m 이상 떨어져 앉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감염을 예방한다.

현재 실습 과목으로 대면 수업을 듣고 있는 4학년 조채은 학생은 “대면강의를 하면서 학교와 학과의 훌륭한 대처와 감염예방관리 덕분에 불안감 없이 학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과 내에서 이루어진 개인별 페이스 실드와 손 소독제 제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다. 우송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 이다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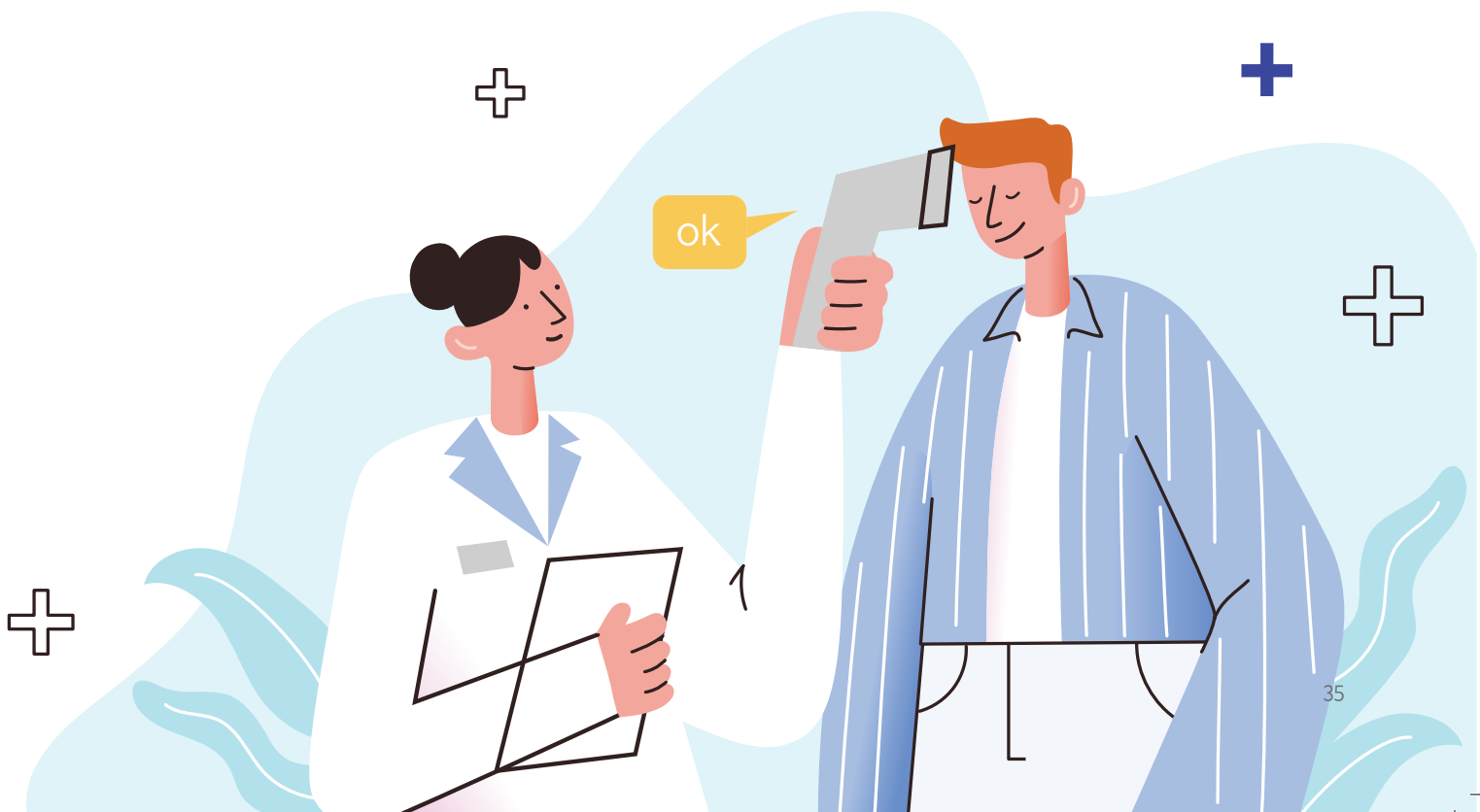
임상 실습과 온라인 실습 병행

3, 4학년 실습

2020년 하계실습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1년이 지난, 2021년 하계실습은 임상 실습과 온라인 실습을 병행했다. 온라인 실습은 소수 정원으로 임상 실습 못지않게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시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것들은 동영상이나 Elsevier, 유튜브 영상을 통해 관찰하고 개인이 조사한 간호 관련 내용을 모든 학생과 공유하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V-simulation을 통해 간호사가 되어 적절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소그룹을 만들어 역할극을 해보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실습마다 사례연구를 직접 해보고 교수님께 간호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하루 실습의 끝으로는 2시간씩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보내며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실습을 진행하였다.

대부분 학생은 임상 실습에서 전반적인 병원의 분위기, 간호사의 직무, 현장에서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온라인 실습은 V-simulation을 통해 환자가 처음 병원에 내원한 순간부터 사정하고 간호를 제공하여 이론적인 면을 깊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맘 편히 실습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 신유진 기자



제 16호 2020년 2학기(2020. 09. 01 - 2021. 02. 28)
2021년 1학기(2021. 03. 01 - 2021. 08. 31)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